

독일문학 연구의 한국적 의미

「독일문학의 본질」과 「독일 표현주의 드라마」

李相日

성균관대 독문과 교수

왜 외국문학을 하는가. 우연찮게 독일문학의 길로 들어서서 거의 40년의 세월을 보내며 나는 왜 내가 독일문학을 해야 하는가를 자문하곤 한다.

독일문학만이 아니다. 영미문학이나 불문학, 중문학, 일본학자들에 대해서도 나는 대답없는 물음을 던진다. 왜 당신은 그 나라 문학담구에 세월을 보내느냐고. 그것은 마치 대학입시 면접에 나온 외국문학 지망생에게 던지는 형식적인 질문과 같다.

우연히 외국문학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까닭없이 나는 독일문학에 귀중한 내 생애를 바치게 된 것인가..... 아닐 것이다. 무엇인가 대답이 있을 것이다.

문학적 보편성에는 한국문학이나 외국문학이나 차이가 없을 것이며 따라서 독일문학을 통해서나 영미문학, 불문학, 중문학, 일본학을 통해서도 문학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외국문학 연구의 기본은 그 나라 문학의 본질이고 그 본질들의 대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문학의 본질, 세계문학의 보편성에 다다를 수 있다.

세계문학담구의 지평열기

김주연교수의 「독일문학의 본질」(민음사)은 저자 스스로 약간 그 포괄적인 題名을 어색해 하면서 왜, 그가 독일문학을 하는가를 모색해나간 과정을 제1부 4편, 제2부 9편의 논문에서 제시해준다.

문학평론과 문명비평 작업을 동시해 전개해 나오고 있는 김교수가 밝혀낸 독일문학의 본질은 신비주의-낭만주의-이상주의의 그것이고 그것은 독일문학의 전통이다. 그가 독일문학 전공학도로서 천착한 연구결과는 문학평론가의 직관과 결합되면서 ‘푸른 초원에서 마른 풀잎만 골라 먹는 샌님들’ (「파우스트」의 메피스토 대사)의 메마른 작업을 윤기 돌게 한다.

물론 독일문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일관된 논저가 아니고 한편 한편의 논문의 기조에 있는 것이 독일문학의 본질 추구라는 자세이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첫편의 「독일문학의 정신사적 계보」나 마지막 논문인 「1945년 이후 전후문학과 神」에서도 독일문학만이 갖는 역사적 구조에서 그 본질적인 속성이 드러나 있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런 독일문학의 본질적인 것이 우리 문학의 본질적인 것과 어떤 점에서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을

「독일문학의 본질」과 「독일 표현주의

드라마」는 전자가 연구논문들의

묶음 속에 독일문학의 본질담구라는

저자의 일관된 의지를 깔고 있는 반면

후자는 일정한 주제 아래 체계화를

통한 내용해설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그러나 두권 모두 문학담구의

지평 열기로 외국문학을 한다는 자체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 해답을

준다는 점에서 방향이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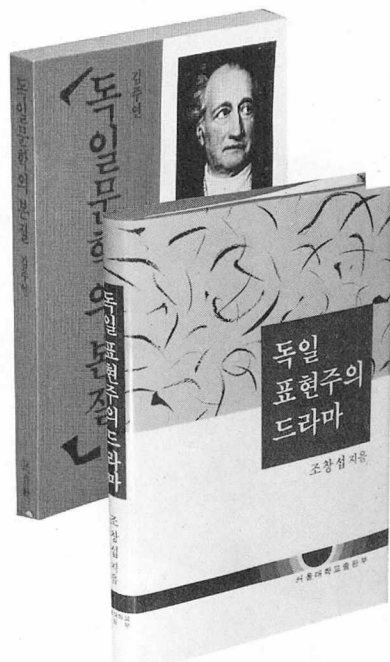
암시해줌으로써 독일문학은 한국문학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 시사된다는 사실일 것이다.

김교수가 일찍이 받아들여 우리 평론계와 학계에 문학연구의 한 지침을 마련한 「아도르노의 문학이론」도 바로 우리문학과 사회변동과 무관하지 않다. 격변해가는 현실속에서 문학예술을 포함한 문화의 가치와 기능을 지키고 그로써 탈공업사회의 예술과 문화에 대한 이론적 핵심으로서 ‘否定的 변증법」을 도출한 아도르노는 벤야민, 마르쿠제 등 이른바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인문과학적 사회과학이론이 철학부재시대의 철학을 수립해 나갔고 그런 사실을 김교수는 독일 이상주의의 실현으로 보는 것이며 아도르노를 통한 독일문학의 본질 규명을 한국문학의 본질규명에 대한 통로로 삼는다. 그렇게 해서 그는 세계문학담구의 지평열기를 자연스럽게 추진해 나온 셈이다.

표현주의 드라마 입문서

같은 독일문학 연구서라 하더라도 조창섭 교수의 「독일 표현주의 드라마」(서울대출판부)는 메피스토가 조소하는 것처럼 마른 풀을 뜯어먹는 메마른 작업의 성과라 할 것이다. 학문의 길은 고달픈 문헌조사와 기계적인 체계화 끝에 이루어지는 성과의 집대성이기 때문에 창조적 정신, 곧 예술가의 세계에서 보면 그것처럼 무미건조한 작업도 없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문학연구도 지적 작업이라는 지식인·학자들의 자화자찬 같은 업적성공을 폄하하는 시인·작가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 문학을 하는 계층은 예



술가들이고 그 결과를 다루는 계층, 즉 ‘푸른 초원에서 마른 풀잎이나 뜯는 샌님」들 가운데 그것도 외국문학을 다루는 독일문학도의 업적이라 했다 어느 정도이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묻는 것이다. 왜 외국문학을 하는가. 독일 표현주의 드라마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생애를 바쳐 그것을 전공으로 삼아 성취동기를 채우게 되는가.

아마 대답은 그럴 것이다. 누군가가 그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런 작업이 업적으로 쌓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연구경력이 쌓이게 됨으로써 비로소 외국문학연구가 넓은 의미에서 우리문학, 그리고 세계문학 연구의 보편성과 만나게 되리라고.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독일문학 연구가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반세기가 겨우 될까말까한다. 그것도 개론서 정도의 독일문학 입문 단계를 거쳐 장르별, 작가연구서 등이 출간되기 시작한 것은 이 10년 이내의 현상이다. 독일 현지에서 학문수업을 마친 세대들이 돌아와 국내 대학에서 자리를 잡고 출판업계가 문학일반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과 지적 호기심을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독일 문학연구서들도 햇빛을 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드라마 부문에 관한 한 아직도 독일드라마 연구업적은 극히 미미하다. 개관적인 독일드라마사나 희곡이론사와 개별적인 독일현대극작가, 예를 들면 브레히트연구서 외는 극장사 연극사와 관련된 독일 희곡연구는 시나 소설에 비하면 평행이 잡혀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교수의 「독일 표현주의 드라마」는 독일 드라마 분야의 업적이 될 뿐만 아니라 독일문학연구를 통한 한국드

라마 연구의 지평 열기에 틀림없이 일조하게 될 것이다.

내가 드라마 분야의 전공자라는 입장에서 이 책을 읽으며 첫째로 아쉽게 느끼는 것은 참고문헌들이 주로 60년대 이전, 그러니까 하나의 ‘이름」이 연구 대상으로 떠오른 데 50년이 걸린다는 독일 학계의 일반적 경향으로 봐서 7, 80년대에 들어 특히 활발해진 표현주의 연구서들이 목록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다. 조교수는 독일 표현주의 드라마의 생성 배경과 표현주의 문학의 전개과정, 그리고 그 드라마의 여러 경향과 여러 형식을 다루면서 주로 제1차 세계대전 전후의 시대 사회상을 반영한 희곡 작품들은 연구의 기본 텍스트로 삼은 까닭에 해설위주가 된 이 책은 대학의 젊은 독문학도들의 교재용으로 집필된 것처럼 보인다. 그만큼 읽기 쉽고 체계적이며 주요 희곡작품 해설(제2부)까지 붙여 있어서 드라마를 통한 표현주의 입문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 것으로 보이는 이책에서는 60년대 후반기부터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한 표현주의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신표현주의 형식의 태두가 극장무대에서 연극사적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가를 숙제로 남겨 두고 있다.

그 숙제는 저자인 조창섭교수 자신의 과제가 될 것이며 그 과제가 해결될 때는 한국에 있어서의 독일문학 연구라는—왜 외국문학을 하는가라는 기본 숙제도 우리문학, 특히 취약한 드라마 부문의 학문담구 지평열기가 확고해질 것이다.

왜 외국문학을 연구하는가

김교수의 「독일문학의 본질」과 조교수의 「독일 표현주의 드라마」는 전자가 연구 논문들의 묶음 속에 독일문학의 본질담구라는 저자의 일관된 의지를 깔고 있는 반면 후자는 일정한 주제 아래 체계화를 통한 내용해설이라는 점에서 두 저서를 같은 자리에서 논평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왜 외국문학을 하느냐를 두고 묻는다면 그와 같은 두가지 방향이 다같이 문학담구의 지평 열기로 우리 문학연구와 세계문학과 동참에, 외국문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 해답을 주게 될 것이다.